

지주회사

지주회사



최남곤

02 3770 5604
namkon.choi@yuantakorea.com

RA 강순건

02 3770 5598
sungeon.kang@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두산	BUY (M)	180,000 (M)
롯데지주	BUY (M)	62,000 (M)
한화	BUY (M)	38,000 (M)
CJ	BUY (M)	140,000 (M)
LG	BUY (M)	140,000 (M)
SK	BUY (M)	350,000 (M)
한진칼	HOLD (M)	33,000 (M)
한솔홀딩스	BUY (M)	7,000 (M)
GS	BUY (M)	78,000 (M)

Weekly(1/16~1/20): 주주행동주의 승리

투자자 동향

▶ 지난 한 주간 지주회사 평균 주가수익률은(+0.8%). 한 주간 Best는 AK홀딩스(+7.4%), Worst는 LS(-3.7%)

▶ 한 주간 기관투자자는 현대글로벌비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140억 원). SK를 가장 많이 순매도 (-113억 원). 한 주간 외국인투자자는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순매수(+220억 원). 현대글로벌비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24억 원). 주요 지주회사 기준, 국내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65억 원).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22억 원)

한 주간 Review 및 전망

▶ LX홀딩스, 경영권 승계 속도

☞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의 장남 구형모 부사장, LX홀딩스 지분 확대. 취득 후 지분율은 11.92%. 구본준 회장(19.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분율. 구 부사장은 1987년 생으로 2021년 5월 LX홀딩스에서 상무를 역임한 뒤 2022년 9월 부사장으로 승진

▶ SK스퀘어, 11번가 상장 철회 가닥

☞ 11번가는 IPO 추진 작업 잠정 연기. 11번가는 지난해 8월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5개월여간 기업실사,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준비 등 제반작업 진행 중이었음. 11번가는 5년 이내 상장 조건으로 2018년 5,000억원 편당. 따라서 금년 내로 IPO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다만 FI 합의가 전제될 경우 상장 시기를 늦출 수 있음

☞ SK스퀘어 입장에서는 주요 포트폴리오의 IPO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①성장 전략, ②FI 편당의 부채화 가능성에 노출. 따라서 IPO 옵션뿐 아니라 매각 옵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다만 EQT파트너스와 SK실더스 기존 주주 간의 지분거래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 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음

▶ EU,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합병 2월 17일 결정

☞ EU 집행위원회는 2월17일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 발표. EU 승인 후 남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영국은 경쟁 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조만간 이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이르면 1분기 내로 승인 절차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

▶ 에스엠, 얼라인파트너스 제안 지배구조 개선 방안 전격 수용

☞ ①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할 계획. 기타비상무이사로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추천. ②새롭게 선임될 사외이사 3인은 사내이사 1인과 외부 인사 1인, 얼라인파트너스 추천 위원 1인으로 구성된 임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통해 추천 → 얼라인파트너스는 기존에 제시한 소송 청구를 철회하고 공개 주주 캠페인을 종료할 방침

- ☞ KT&G 주주총회(2006.03)에서 리히텐슈타인 스틸파트너스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행동주의 펀드 추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첫 사례로 판단. 특히 국내 행동주의 펀드 주도의 사외이사 교체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수용됐다는 점에 주목
- ☞ 현재 국내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하여 KT&G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 진행 중. 금융위원회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한국 증시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

주간 지주회사 주요 뉴스 (1.16~1.20)

<주간 지주회사 주요 뉴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급물살 탈까... SK·삼성물산 등 영향 주목 (경향신문)**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간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주로 쓰였던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하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삼성·LG'가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스타... 전망은 (MoneyS)**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각각 투자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로보스타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로봇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실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투자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 나갈 전망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무인화/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로봇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국제로봇 연맹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0억 달러에서 2025년 53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이 꺾이자 94%↑...시총 1조 로봇주 나왔다 (한국경제)**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에 나선 것을 계기로 로봇 관련주의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며 테마주 성격이 강했던 로봇 관련주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17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1.46% 오른 시가총액 1조 770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로봇 주 가운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만 93.8% 상승했으며 뉴로메카, 에스피지, 로보티즈 등 다른 로봇주도 강세를 보였다.

<주간 삼성 그룹 뉴스>

▶ **삼성 외부인재 수혈...이재용, S 급 인재 '싹쓸이 영입' (한국경제)**

삼성전자가 'S 급 인재'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에 신사업을 맡겨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러한 삼성의 기조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부터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거점에서 인재 채용 행사를 열 계획이며 빅 테크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타깃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 테크 출신 인재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쟁사의 감원을 인재 확보 기회로 보고 있다.

<주간 두산 그룹 주요 뉴스>

▶ **美 SMR 시장 선점 나선 두산에너지...엑스에너지에 500만弗 투자 (매일경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소형모듈원자로 업체에 대대적 투자를 단행하며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케일파워에 이어 엑스에너지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이다. 투자금은 총 5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의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지분을 갖게 되었다. 앞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에 2019년, 2021년 총 2번 투자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주간 롯데 그룹 주요 뉴스>

▶ **'배당금 1500→1700→2000원'...롯데지주, 리스크 해소·실적 증가에 주주환원 앞장 (시사저널 e)**

롯데지주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증가 등 실적 확대에 힘입어 예년 대비 늘어난 금액을 올해에도 주주들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2018년 지주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리고 있는 배당금 상향 정책을 이번에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이달 초 메리츠증권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협약식을 진행함으로써 유동성 위기가 일단락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지주의 배당정책은 별도 손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실적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결산 배당금은 1,700원, 2024년에는 2,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롯데케미칼, 자금 흐름 숨통 트이나...파키스탄 법인 인수 14년 만에 매각 차익 '1800억' (매가경제)**

롯데케미칼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파키스탄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PL 의 보유지분 전량을 현지 화학회사인 럭키 코어 인더스트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롯데케미칼이 가져갈 차익은 1,777억원이며 이번 자산 매각으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한 재무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롯데제과, 인도 자회사에 700억원 투자...빙과공장 설립 (머니투데이)**

롯데제과는 인도 자회사인 하브모어 사에 5년간 45억 루피(한화 약 700억 원) 투자를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투자를 통해 롯데제과는 탈레가온에 6만㎡ 규모의 새로운 빙과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며 하브모어의 빠른 성장으로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번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한화 그룹 주요 뉴스>

▶ **한화솔루션 대규모 투자 실행사 반응은 '부정적' (이데일리)**

한화솔루션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3조 2,000억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모듈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총 8조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증권사는 금번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신용평가사의 반응은 증권가에 비해 다소 차갑다. 한국기업평가는 'IRA 에 기초한 세액 공제 혜택 등을 감안할 때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 대응 가능할 것이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 분석했으며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중단기 잉여현금흐름 적자가 예상된다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자료: 언론자료

지주회사 주간 동향 (1.16 ~ 1.20)

Valuation 비교

	PER 2023E	PBR 2023E	ROE 2023E	Mkt. Cap (십억원)
KOSPI	12.0	0.9	7.5	1,832,944
삼성물산	11.1	0.6	6.7	22,333
삼성 SDS	12.3	1.1	9.1	9,479
현대글로벌비스	5.1	0.8	17.6	6,694
SK	7.0	0.4	8.0	14,385
SK 디스커버리	N/A	N/A	N/A	596
LG	6.2	0.5	8.0	12,993
LX 홀딩스	N/A	N/A	N/A	649
GS	2.1	0.3	14.3	4,218
CJ	8.0	0.5	6.6	2,489
롯데지주	10.4	0.3	4.7	3,514
한화	2.3	0.7	32.1	2,088
두산	8.4	0.6	9.7	1,476
LS	4.6	0.4	11.3	2,183
AK 홀딩스	N/A	N/A	N/A	231
한진칼	8.6	1.0	12.1	2,680
삼양홀딩스	N/A	N/A	N/A	604
코오롱	N/A	N/A	N/A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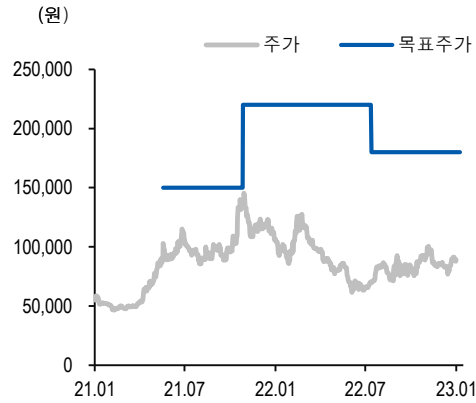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가 Data

	Performance (%)					최근 5영업일 순매수 (십억원)			
	1W	1 M	3M	6M	1Yr	기관	외국인	개인	기타법인
KOSPI	0.4	2.7	8.0	0.4	-16.3	-610.6	1,338.8	-719.2	-9.0
삼성물산	1.3	1.3	8.1	3.5	6.7	-2.1	22.0	-17.5	-2.4
삼성 SDS	-1.6	-0.8	1.7	-7.2	-18.6	-6.8	2.5	4.3	0.0
현대글로벌비스	1.1	4.7	5.0	-2.7	9.2	14.0	-2.4	-11.1	-0.5
SK	0.5	-3.2	-6.5	-10.0	-18.3	-11.3	13.0	-2.4	0.7
SK 디스커버리	2.3	-2.8	2.5	-12.5	-29.7	-0.5	0.1	0.5	-0.1
LG	0.9	4.8	4.8	4.8	4.3	8.1	-1.8	-5.9	-0.4
LX 홀딩스	-0.5	-3.4	3.2	-1.5	-14.9	0.3	-0.1	-0.1	-0.1
GS	1.6	-0.8	-4.2	12.9	14.8	2.5	-1.1	-1.3	-0.1
CJ	1.3	5.3	16.2	8.8	6.0	6.5	0.9	-4.9	-2.4
롯데지주	2.6	5.0	-2.1	-4.6	18.4	1.8	2.3	-3.9	-0.1
한화	-0.5	1.5	14.9	14.9	-8.1	0.4	1.3	-1.4	-0.4
두산	-2.2	4.1	8.6	36.5	-16.2	-4.8	4.3	0.4	0.1
LS	-3.7	-6.0	6.3	25.3	25.6	-1.8	-1.6	3.6	-0.2
AK 홀딩스	7.4	5.8	36.5	7.4	-6.7	0.0	0.2	-0.2	0.0
한진칼	3.1	3.2	9.1	-30.7	-29.4	0.3	1.7	-1.9	-0.1
삼양홀딩스	1.3	-0.4	13.2	-4.6	-23.2	0.1	0.5	-0.5	0.0
코오롱	-1.6	-1.6	-22.5	-10.0	-28.9	0.0	0.3	0.7	-1.0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두산 (0001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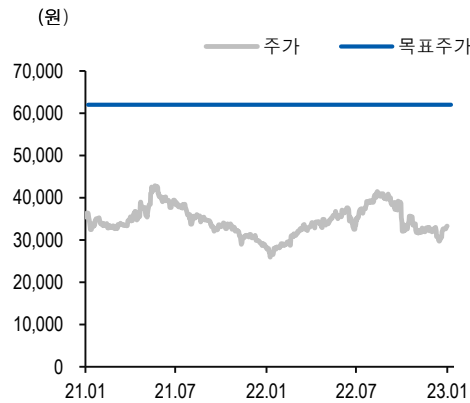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180,000	1년		
2022-08-01	BUY	180,000	1년		
2021-11-15	BUY	220,000	1년	-56.08	-33.86
2021-06-07	BUY	150,000	1년	-33.92	-6.6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롯데지주 (0049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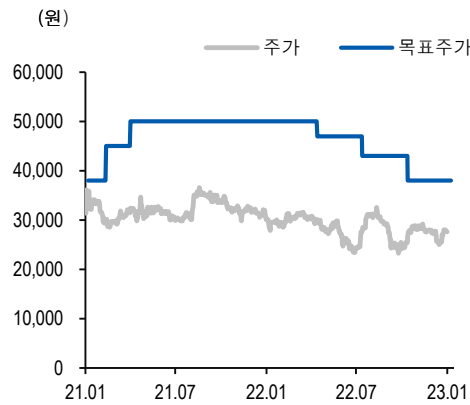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62,000	1년		
2021-02-03	1년 경과 이후		1년	-44.42	-30.89
2020-02-03	BUY	62,000	1년	-45.86	-30.89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한화 (00088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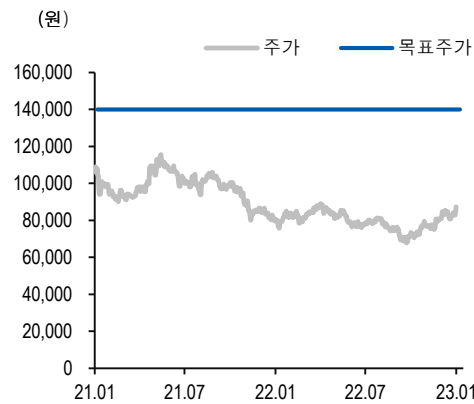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38,000	1년		
2022-11-01	BUY	38,000	1년		
2022-08-01	BUY	43,000	1년	-34.90	-24.30
2022-05-02	BUY	47,000	1년	-42.93	-36.28
2022-04-20	1년 경과 이후		1년	-39.97	-38.40
2021-04-20	BUY	50,000	1년	-36.56	-26.80
2021-03-02	BUY	45,000	1년	-29.57	-18.67
2020-08-14	BUY	38,000	1년	-25.88	-4.8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CJ (0010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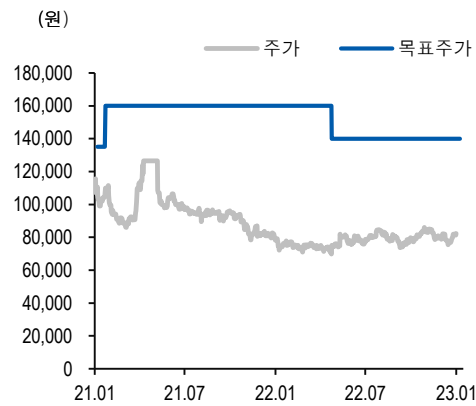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140,000	1년		
2021-01-29	1년 경과 이후		1년	-36.86	-17.50
2020-01-29	BUY	140,000	1년	-38.07	-16.79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LG (0035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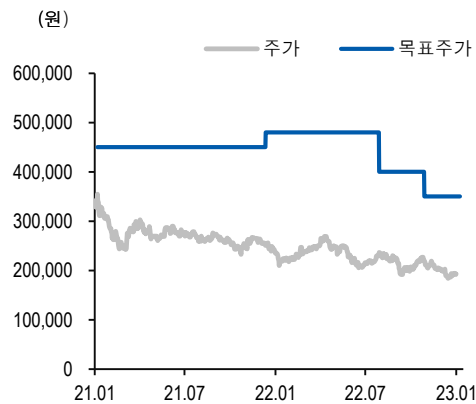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140,000	1년		
2022-05-13	BUY	140,000	1년		
2022-02-03	1년 경과 이후		1년	-53.55	-51.38
2021-02-10	BUY	160,000	1년	-43.04	-20.94
2021-02-03	1년 경과 이후		1년		
2020-02-03	BUY	135,000	1년	-44.59	-14.44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SK (0347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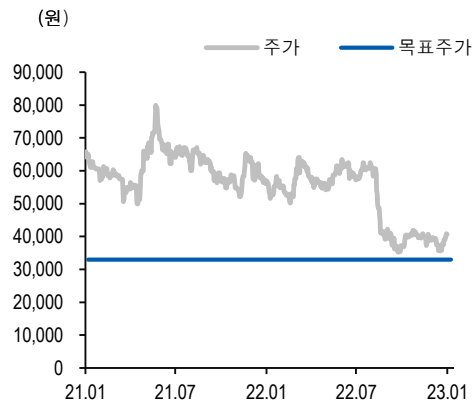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350,000	1년		
2022-11-16	BUY	350,000	1년		
2022-08-17	BUY	400,000	1년	-46.01	-41.00
2021-12-31	BUY	480,000	1년	-51.21	-43.96
2021-01-13	BUY	450,000	1년	-39.42	-21.11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한진칼 (1806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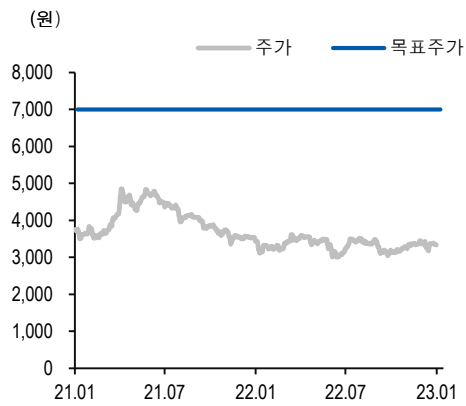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HOLD	33,000	1년		
2021-02-03	1년 경과 이후		1년	69.10	-
2020-02-03	HOLD	33,000	1년	88.28	-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한솔홀딩스 (0041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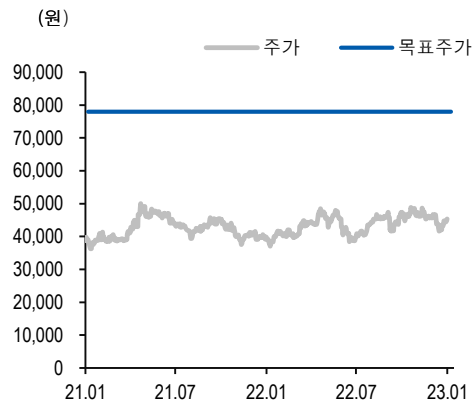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7,000	1년		
2021-02-03	1년 경과 이후		1년	-47.52	-30.71
2020-02-03	BUY	7,000	1년	-49.37	-30.71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GS (078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1-25	BUY	78,000	1년		
2021-02-03	1년 경과 이후		1년	-44.67	-35.90
2020-02-03	BUY	78,000	1년	-47.28	-35.90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최남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